

成長과 變身の 10돌에 부쳐...

跳躍의 새로운 章을 열었던 1988년이 역사의 그림자속으로 잠기고, 희망찬 己巳年 새해를 맞아 관계기관과 회원사, 장병 및 애독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선진국의 최신 병기기술 정보와 국내외 발전동향의 자료를 제공하여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國防과 技術>誌가 창간 10주년을 맞게 됨을 회원사 및 애독자 여러분과 기뻐하며, 훌륭한 玉稿를 보내주시는 필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속에서 발행에 힘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0년대초 태동되어 불과 20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국가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한 우리의 방위산업은 재래식 무기체계의 모방생산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무기체계의 개발을 지향하며, 자주국방의 조기달성이라는 대명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방위산업진흥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그 이면에 자리한 「强者存」의 진리를 재인식하여, 강력한 국방의 기반 구축에 邁進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民間主導 해외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7년부터 해마다 개최되어온 韓·美 방산회의와 韓·오레곤 산업협력회의에 내실을 도모하면서 각종 해외 방산전시회와 방산협력회의를 통한 수출창구 다변화에 熱과 誠을 다할 것입니다.

창간 10돌을 맞게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주신 관계기관과 회원사, 장병 및 애독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軍事專門誌인 <國防과 技術>이 세계 有數의 군사잡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1월

韓國防衛産業振興會
상근부회장 柳俊馨